선교사역 MISSION

우리의 국외 사역

큰은혜교회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아가페교회
최정선 목사 (한국)	박경복 목사 (일본)	윤상현 선교사 (필리핀)

Compassion

컴패션과 함께 양육하는 16명의 아이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BRIANA	ESTEFANI	CAMILA	EMELY
GENESIS	NANCY	JENNSY	GAEL
JOSUE	ROBERTO	LIA	OSCAR
LUIS	YEFERSON	ORIANA	VALENTINA

우리의 국내 사역

홈리스 아웃리치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는 돌봄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산호세 St. 제임스 파크

지교회 (솔라노 큰빛은혜교회, 순복음 파소 교회)

솔라노 지역과 파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배드리는 두 지교회

솔라노 | 주일 예배: 오후 1시 장소: 78 Peabody Rd, Vacaville, CA 95687

파소 | 주일 예배: 오전 11시 장소: 3402 Oak St, Paso Robles, CA 93446

캠퍼스 사역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깨어있는 시대정신과
영성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사역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De Anza college

어라이즈 워십 & 악기클래스

베이지역에 찬양의 향기가 울려 퍼지며,
악기레슨을 통해 1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교육관

교회비전 VISION

MISSION STATEMENT

W.O.R.L.D. VISION

Worshi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

Oikos Church
소그룹 교회

Reaching Out Church
돕는 교회

Life Giving Church
살리는 교회

Discipling Church
제자삼는 교회

큰빛은혜교회를
검색해보세요

예배안내 WORSHIP SERVICE

주 일 1부	오전 9시	본 당
주 일 2부	오전 10시 30분	본 당
주 일 학 교	오전 10시 30분	교 육 관
금 요	오후 7시 30분	본 당
새 벽	오전 6시 (월-금)	교육관 / YouTube Live

Bay Area Full Gospel Church

큰빛은혜교회

Be still, and know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웹 바로가기

Senior Pastor

담 임 목 사 이기봉

Asistant Pastor

교 육 전도사 김태아 임성호 김승연 Grace Kim

지교회 전도사 이중록 Sam Kim

큰빛은혜교회

415 317 4631

www.bafgchurch.org

bafgchurch@gmail.com

125 E Arques Ave, Sunnyvale, CA

예배순서 WORSHIP

제 5호 30권 Vol. 5 No.30

7.26.2026

여는 기도 Opening Prayer		김태아 전도사 Taeah Kim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같이 Together
대표 기도 Representative Prayer		장승현 성도 Seung Hyun Jang
말 씀 Sermon	베드로의 두번째 설교 사도행전 3장 1~26절	담임목사 Serior Pastor
합심 기도 United Prayer		다같이 Together
봉헌 및 찬양 Offering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같이 Together
광 고 Announcements		담임목사 Serior Pastor
* 찬 양 Blessing Song	삼중 축복	다같이 Together
축 도 Benediction		담임목사 Serior Pastor

* 자리에서 일어나서
* Please stand

대표기도 REPRESENTATIVE PRAYER

기도 순서

	7/26	8/2(연합)	8/9	8/16	8/23
1부	김보라	–	김태아	김지훈	이중록
2부	장승현	김종길	이준하	황유민	박소려

교회소식 ANNOUNCEMENTS

1. 연합 및 성찬 예배
다음 주(8/2)는 연합 및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영화 시청
제목: “신의악단”
일시: 7월 31일 (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본당

3. 공동의회
일시: 8월 16일 (주일) 오후 1시
장소: 본당
안건이 있으신 분들은 각 셀 전도사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예배지
홈페이지에 가정예배지가 업데이트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5. 7~8월 성경 읽기 프로젝트
범위: 대선지서(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모두 성경 읽기 표에 체크하시면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7월 생일

6일	진영아 성도	26일	김수경 성도
10일	박소려 집사	31일	주보배 사모
17일	이기봉 목사		

8월 성찬위원

임성호, 김아론, 김대환

이번주 새벽기도회

월	화	수	목	금
열왕기상 7:23-26	열왕기상 7:27-39	열왕기상 7:40-47	열왕기상 7:48-51	열왕기상 8:1-11
Grace Kim	Grace Kim	이중록	이중록	김태아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7.26.2026

테세우스의 배

테세우스의 배는 세월이 지나 바닷바람과
소금기에 삭아버린 돛대를 교체합니다.
썩어버린 노목을 빼내고 튼튼한 새삼나무 판자를 대어 넣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원래 있던 나무판자가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일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르코스가 던진 이 오랜 질문은, 흔히 물리적 정체성의 유지를 묻는 형이상학적 퀴즈로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배의 돛대를 우리의 세포로, 바닷바람을 우리가 견뎌낸 수많은 계절과 경험으로 바꾸어본다면 이 질문은 비단 옛이야기 속 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대부분은 7년 전의 그 세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우리는 종종 “예전의 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라거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마치 사람에게 변치 않는 ‘본질의 판자’가 내장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는 매순간 고쳐 지어지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억을 더하고, 쓸모없어진 가치관을 디딤돌 삼아 던져 버리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돛을 고쳐 답니다.
만약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이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눈다면 어떨까요? 아마 선호하는 음식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실패를 대하는 태도까지 무엇 하나 온전히 일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10년 전의 나라는 조각들이 모조리 교체되었다면, 지금의 나는 과연 10년 전의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체성은 ‘재료’가 아니라 ‘항해’에 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질문에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선을 ‘재료’에서 ‘궤적’으로 옮겨야 합니다. 테세우스의 배가 테세우스의 배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배가 사용했던 나무의 화학적 성분 때문이 아니라 아테네를 출발해 크레타섬을 거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배가 함께 견뎌낸 파도와 그 위에서 흘린 선원들의 땀방울, 그리고 ‘항해를 계속해 나갔다’는 연속성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바뀌어도 : 그 세포가 품고 있는 흉터와 기억의 궤적은 계속 이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도 : 그 생각을 바꾸게 만든 삶의 시련과 배움의 과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나’라는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단단한 본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삶이라는 항해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나에 얽매여 스스로를 한계에 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옛 판자가 썩었다면 망설임 없이 빼내고 새판자를 대어 넣으면 됩니다. 변화는 정체성의 상실이 아니라, 더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보수작업(Maintenance)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는 어떤 마음의 판자를 교체하며, 어디를 향해 노를 저어가고 있는가?”입니다.